

MOVE BY STORY VOL. 13

20130510

당신을 흔들리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 연진회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레디, 액션! 홍콩

여행 친구 - 화려함과 처연함이 공존하는 홍콩의 거리에서
Action! 방송인 안선영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방목곤 이선연

MUSE

우리가 '액션'해야 하는 이유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13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5월 1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정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민지홍
사진촬영	안선희 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팅스북스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갤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손미나의 여행사전

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여행지 테마



HONG KONG

액션

13회 with 안선영

세상에서 가장 큰 스크린

홍콩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최극 여백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BORMES-LES- MIMOSAS

절정

7회 with 이영미

노란 백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볼-레-미모자 마을



SICILIA ISLAND, ITALY

천국

8회 with 김수로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극지

도전

9회 with 윤승철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BERLIN, GERMANY

통하다

10회 with 이재용 감독

One-通(원통)한 도시,

독일 베를린



대한민국

바람

11회 with 스윗소로우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바람을 찾아서



LONDON, UNITED KINGDOM

여유

12회 with 장기하

무심코 만나는 여유,

영국 런던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레디, 액션! 홍콩 Hong Kong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am.net

홍콩하면 떠오르는 것.

영웅 본색,

침밀밀,

패왕별희,

장국영, 주윤발, 유덕화, 장만옥, 양조위, 왕가위...

명품 쇼핑, 야경, 딤섬, 야시장, 트램, 애프터눈티, 에그타르트 등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돌는 영화와 영화배우가 생각난 당신이라면
이번 여행의 감성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 좋을 사람이다.
더불어 당신이 어린 나이는 아니란 뜻도 되겠다.

영화만큼의 천의 얼굴을 가진

홍콩 구석구석, 추억의 미장센을 찾으러 지금 떠나보자.

레디, 액션!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손여사를 만드는 사람들〉 진행 손미나 고정게스트 바닐라맨 김독 이에걸 대본 윤선에 프로듀서 문두열 음악 이택승 진행 최진주



HONG KONG

홍콩

구룡반도

● 캔톤로드

●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 리펄스 베이

홍콩섬



영화 <중경삼림> 中

매력포인트 1

지나간 사랑과 새로운 사랑이 연결되는 곳,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영화 <중경삼림>에서 네 명의 주인공이 만나고 헤어지던 곳,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세계에서 가장 긴 800m 길이의 이 에스컬레이터는 왕정문이 허리를 숙이고 양조위의 집을 훑쳐보는 장면으로 더욱 유명하다. 원래는 윗동네 사람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하행선으로만 만들어졌으나 두근거리는 영화의 로맨스가 입혀져 홍콩 여행의 필수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홍콩을 한눈에 내려다 보고 싶다면 이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요긴한데 오르는 과정에서 소호거리는 물론, 구석구석 홍콩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곳을 찾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팁 하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양방향이지만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 오전 10시 이전에는 아래쪽으로, 그 이후 시간대에는 위쪽을 향해 움직인다.





매력포인트 2

소박한 사랑에 가려진 화려함, 캔톤로드 Canton Road

하버시티, 구찌, 샤넬, 루이비통 등이 자리잡고 있는 명품거리 캔톤로드는 홍콩의 중심가다. 호화로운 쇼핑몰과 빌딩, 거리만큼이나 화려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촌스러운' 남녀 한쌍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바로 영화 <침묵의 봄>의 한 장면 때문. 남녀 주인공이 배달자전거를 타고 캔톤로드를 가로지르는 이 장면은 홍콩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를 그들의 소탈한 모습에 가려지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와 현재, 부와 빈곤, 꿈과 현실이 뒤엉킨 홍콩의 모습 자체이기도 하다. 캔톤로드를 걷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등려군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매력포인트 3

반대로 하는 사랑, 거꾸로 보는 홍콩

아직도 영화 <춘광작설 春光乍洩: Happy together>를 보지 않았다면 약간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므로 영화를 본 뒤에 읽거나 건너뛰기를 바란다. 영화에서 보영(장국영)과 아취(양조위)의 엇갈린 사랑은 현실을 소름 끼치도록 묘사하고 있다. 동성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호기심마저 몰입으로 바꾸어 버리는 특별한 힘을 가진 영화다. 무엇보다 영화 말미에 폭포이미지가 담긴 스탠드를 뒤집어놓고 시간을 되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보영의 눈빛은 감독이 거꾸로 담은 홍콩의 모습들과 머릿속에서 교차되며 영화의 색다름만큼이나 홍콩이 색다르게 보인다. 영화 자체가 도시, 도시가 영화자체인 홍콩. 이쯤 되면 빠질 수 밖에 없다.



매력포인트 4

아름다움과 진심의 상관관계, 리펄스베이 Repulse Bay

홍콩 속 작은 휴양지 리펄스베이는 복잡한 홍콩 시내와는 다른 느낌이다. 홍콩 사람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눈 앞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어 홍콩 여행에서 잠시 조용한 휴식을 원한다면 이 곳을 방문해도 좋겠다. 리펄스베이 해안선을 따라 많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은 바로 영화 <색계> 촬영지로 유명한 'The Verandah'다.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의 첫 데이트 장소로, "이 곳의 맛보다는 아름다움과 함께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양조위의 작업멘트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추가로, 여유로워 보이는 리펄스베이 해변의 반짝이는 모래는 유럽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하니 먼 바다 건너 온 비싼 모래를 맨발로 밟는 호사도 놓치지 말 것.



매력포인트 5

화려함 뒤에 담긴 고달픈 삶, 경극

“나는 본래 사내아이로서 계집아이도 아닌 것이 머리를 깎이어...”, “왜 항상 우회만 죽어야 되는거지?”, “1분 1초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평생이 아니야” 등의 영화 <패왕별희>에서 주인공 두지(장국영)의 주옥 같은 대사가 아직도 선명한 잔상으로 남아있는 당신이라면, 홍콩역사박물관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그곳에서는 경극과 관련 된 소품, 경극 무대, 경극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장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극 관람이 가능하다.

여행 친구 화려함과 처연함이 공존하는 홍콩의 거리에서 Action! 방송인 안선영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손미나의 여행사전〉 13번째 여행친구는 홍콩을 무려 80번이나 다녀온 탤런트 겸 방송인 안선영 씨다. 어떤 이유로 그녀는 홍콩에 발걸음을 많이 한 걸까. 그곳에서의 사랑, 아픔,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까지. 화려함과 처연함이 공존하는 홍콩의 거리에서 그녀만의 영화가 시작된다.

Q. 최근 〈하고싶다, 연애〉를 출간했는데, 주변 반응은 어떤지?

사람들은 안선영을 '노처녀'라는 캐릭터로 인지하며 연애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실제 나만의 통찰이 많다. 우연히 방송에서 연애 노하우에 대한 토크를 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출간 후,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다. '결혼도 못했는데 노처녀 주제에 연애 책을 썼냐'는 반응과 싱글녀들의 폭발적인 호응. 의외로 굉장히, 괜찮은, 수많은, 여자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 아니 못하고 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더라.

Q.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일하는 싱글녀가 살기 힘든 것 같다. '그러니 시집 못 갔지, 그러다 애 못 낳는다'는 말들이 싱글녀를 괴롭힌다.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 마흔에 결혼해도 한 사람과 60년을 해로한다. 내가 페미니스트나 잔다르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싱글녀로서 시기에 상관없이 결국 내 인생의 시기는 내가 결

정하는 것이기에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잃지 말자는 바람을 담았다. 연애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중년의 생활도 잘 꾸린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필자인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 싱글녀에게 '주도적인 마인드로, 좋은 여자가 먼저 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Q. 오늘의 여행지 홍콩에서 영화 같은 사랑을 했다는데.

20대 연애의 모든 것이 홍콩에 담겨있다. 사랑하던 사람이 홍콩에 근무해서 홍콩을 많이 오갔다. 5년간 연애를 했는데, 그 영화의 장르는 로맨틱, 멜로에서 시작되어 서스펜스, 스릴러 호러까지 넘나든다. 그때 당시 방송활동 초창기 시절로 굉장히 힘들 때였다. 개그맨으로 시작하다 보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한 방송인의 이미지가 굳혀가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번 상처였다. 방송국에서도 피디님이나 작가님이 '야, 그게 웃겨?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물레 울기도 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 보니, 홍콩은 나에게 도피처였던 것 같다.

Q.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건 큰 행운인 것 같다.

행운이다. 당시 일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에서 한두 달마다 이 친구를 보러 가는 게 대단히 큰 일탈이고, 거대한 로맨스 같은 느낌을 받았다. 5년의 연애를 통해 처절하고 처연한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30대에는 연애를 객관화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의 사랑을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 감정을 더 사랑한 것 같다.

Q. 홍콩은 정말 남다른 도시인 것 같다.

홍콩은 다문화적이다. 굉장히 유럽적이면서도 가장 중국적인 냄새를 갖고 있다. 전 세계 언어가 다 갖가지에 스치고, 길가를 보더라도 미술랭 스타를 받은 화려한 레스토랑과 건너 뒷골목에는 단돈 1달러를 구걸하는 이들이 있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며, 사람들의 에너지가 끊이지 않는 곳. 홍콩은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홍콩만의 묘한 문화가 뒤섞여 있는 게 매력이다.

Q. 일탈을 꿈꾸는 여행친구를 위한 특별한 여행비법이 있다면?

일탈을 위해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면, 관광지에서 사진만 찍어오지 마시길. 그 여행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참고하며, 주인공의 감정에 빠져들어

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다. 스토리에 빠져 자신만의 감성으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나는 언제나 'ing'다. 그것이 연애, 일, 여행 무엇이든지.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나아가고 싶다. 여행친구들도 모두 파이팅 넘치길 바란다.

※ 안선영 씨의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사랑이야기는 <손미나의 여행사전> 13회 - 2부(5월 20일)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방목꾼 이선연 울타리 안에서 거침 없이 액션, 나와 너를 방목하게 하라!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ambaram.net

액션, 액션, 액션! 현장은 그런 곳이다. 숨쉴 틈 없이 숨차게 달렸다. 스무 살을 갓 넘기고 연극계에 발을 들여 지난 5년 동안 배우와 연출 빼고 안 해 본 게 없다는 이선연 씨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이것저것 계산하기 전에 망설임 없이 몸부터 먼저 나간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을 게 뻔해서 아무도 안 하려는 일도 보이면 집어 들고 자기 일처럼 차츰차츰 해내는 그런 사람. 그러나 들끓는 액션의 피를 타고난 그녀를 매혹시킨 것은 정작 '고요한 텍스트'였다. 그녀는 무대에 오른 배우의 대사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치 영화 자막을 읽듯 가슴에 새겼다. 나도 모르게 액션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분주한 현장도, 들끓던 마음도, 모든 게 정지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희곡을 쓰자고 다짐했다.

문예창작과에서 시(詩)를 전공한 그녀는 “단검아, 내가 너의 칼집이 되어 주마.”와 같이 셰익스피어가 쓴 줄리엣의 대사에 전율했다. 희곡의 대사는 시와 다름 없었다.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유연하게 협업하더라도 ‘나만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연극판 선배의 조언에 공감했고, 희곡이라는 텍스트로 나의 답을 쌓아갈 결심했다. 그때부터 내 희곡이 무대에 오를 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글을 읽고 글을 썼다. 현장이 좋아 현장에 살았지만, ‘뜨내기질’을 계속 해서는 ‘깊이’를 더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책상이 있는 곳을 간절히 원했다. 그녀는 지금 문화공간 숨도의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오롯한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숨도 책극장 한 칸의 좁다란 사서 공간은 그녀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우주다. 이야기가 차 올라 글이 되는 공간이다.

선연씨는 스스로를 ‘방목꾼’이라고 부른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거침 없는 자유를 주고 싶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하는 방목은 방종과 다르다. “마음껏 뛰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경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녀가 ‘행동의 아이콘’다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는 나름의 ‘울타리 노하우’가 있다. 울타리를 답답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무한자유를 보장하는 안전한 놀이터로 인식한다. 주변의 조언도 귀 기울여 듣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선택은 나의 자유’이기 때문에 억눌리지 않는다. 공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공간의 한계 역시 억압으로 느끼기보다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에 집중한다. ‘경계 안에서의 무한 자유’를 깨닫는 순간, 행동이 시작되고, 의외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알기에.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연극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수능을 포기하고 밖에서 낮설게 학교를 바라보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에 나와 보니, 선생님 말씀대로 대학에 못 가면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학창시절에 성실하게 믿었던 가르침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고, 다양한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반향적인 록(Rock) 음악 활동에 빠져 지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빼딱하게 보이던 어느 날, 거리에서 연극과 학생들이 촌스러운 과 티셔츠를 입고 진지하게 거리공연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만나게 되었다. 알 수 없는 끌림에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눈물이 났다. 그때부터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없는 형편에 1년에 1백 편의 연극을 봤다.

연극을 해야겠다는 열망이 커졌고,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꾸준히 시를 쓰고 희곡을 썼다. 연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현장에 뛰어들고 싶었다. 어느 날 희곡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뜬금 없이 그러나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 연극이나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술집에 많이 갑니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까!" 교수님은 황당해 하며 연극기획사 한 군데를 소개해주셨고, 무작정 그곳을 찾 아간 선연씨는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는 연극 스태프로 현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방 공연을 포함, 현장 생활 5년을 진하게 겪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인도로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낯선 곳에 던져지니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지만, 의외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연극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에게는 오히려 연극계 밖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오랫동안 연극을 사랑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지도 모른다. "제가 뭐 애깃거리가 되나요?"라며 껄껄 웃는 그녀에게서 세상의 기준으로 가능할 수 없는 생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희곡이 무대에 오를 날이 기다려진다.

방목꾼 이 제안하는 무브꺼리 5

1. 나만의 노래 만들어 혼자 부르기

아무도 없을 때 반드시 혼자 부르는 나만의 노래, 나만의 멜로디가 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한 노래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지어서 부르는 나만의 노래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



©Frizzitext

2. 매일 아침 시(詩) 한 편씩 소리 내서 읽기

오이도 집에서 신촌까지 왕복 3시간 가까이 출퇴근하면서 시를 집중해서 읽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시 1~2편을 낭송하고 암송한다. 가만가만 소리 내 읽으면 서 스스로 호흡하는 말을 들으면 감동이 밀려 온다.



송비책방

3. 흙과 물을 찾아 걷기가 우선

오이도라는 시골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흙을 밟는 감촉을 좋아한다. 물가를 걷는 것도 큰 위안이 된다.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을 찾아 틈만 나면 걷는다. 흙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걷고 또 걷는다.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4. 한 달에 적어도 한 두 편의 연극 보기

한 달에 적어도 한 두 편의 연극을 보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연극을 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수 많은 이야기와 매번 다른 배우들을 만나지만, 언제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본 연극 중에서는 극단 고래의 <빨간시>가 감동적이었다.



5. 발이 돌부리에 채여도 언제나 하늘 보기

시인은 발이 돌부리에 걸려도 하늘과 바람과 별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평하게 맑은 하늘보다는 구름이 있어 깊은 하늘을 좋아한다. 내 마음 속의 구름을 긍정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하늘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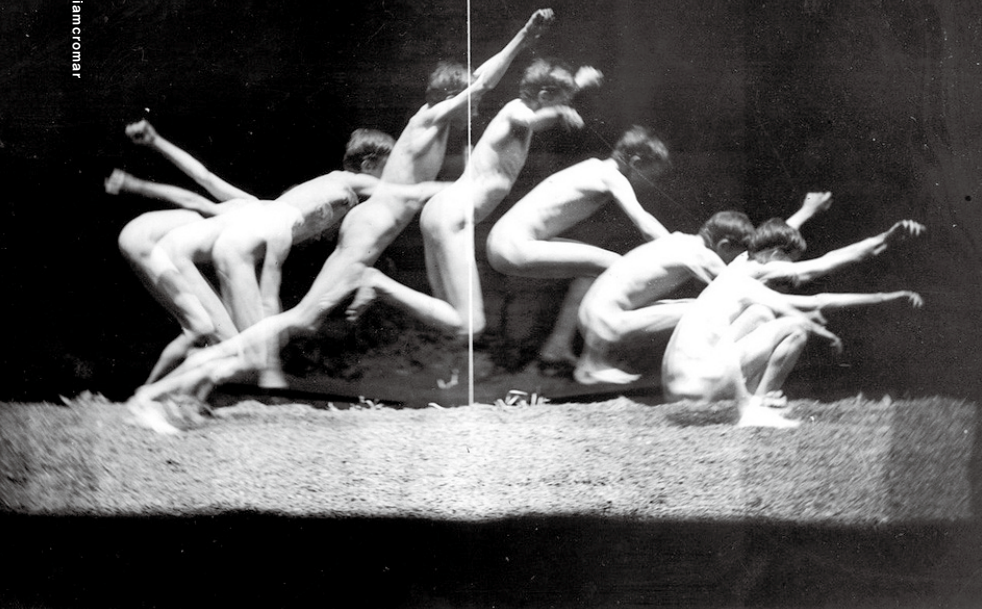


MUSE

우리가 '액션'해야 하는 이유

스토리텔러 김정예 — puri@bombaram.net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처음으로 배에 오르던 콜럼버스의 한 걸음.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실험실로 걸어 간 에디슨의 한 걸음.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 캔버스 앞으로 다가간 다빈치의 한 걸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디딘 당신의 한 걸음. 역사에 한 획을 긋거나 삶의 지표가 바뀌는 순간은 이렇게 사소한 발자국 하나에서 시작된다. 총 길이 30cm 남짓의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 발자국에서 비롯된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역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매일 아침 걷던 길에서 딱, 30cm 만큼만 벗어나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작은 시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기대하면서.



지구를 위로할 것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몸이라는 것은 본디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으며,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여전히 누운 자세로 변명하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당연한 이치. 사물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땅을 딛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온 힘을 다해 끌어당기고 있는 지구가 있기 때문이다. 상상해 보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1분 1초도 쉬지 않고 버텼을 지구의 노력을.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하는 것. 변하기 위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첫 발자국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의무다.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지구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가 아닐까?

첫 번째 위로법, 관성의 법칙을 깨라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하지만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물이 아니다. 관성에 젖어버린 사람은 좀처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간다. 이들에게 달력과 시계는 무의미하다. 몇백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고목에게 시간을 묻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내가 필요하지 않나 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은 것 같아.'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다면 관성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자.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지구를 밟고 서 있는 당신은 억울하다 말할 자격이 없다. 원망이나 자책도 관성의 법칙을 깨고 한 발자국 내디뎌 변화에 휩쓸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두 번째 위로법, 가속도의 법칙을 믿어라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더 강한 에너지가 실린다.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는 것도 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 즉 가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가속도의 법칙은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이다. 또한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목적하면 목적할수록 가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것에 성공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목적한 의지와 함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힘껏 몸을 던져보자. 가속도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도전을 시작한 당신의 결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 위로법,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지켜라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을 때 물체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전달한다. 어느 한 쪽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동등한 힘을 주고받는 것.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으면 그 틈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이처럼 감정이 없는 사물도 공평하게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 하물며 사물도 이러할진 데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 나와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에게 받은 만큼 전하고, 받고 싶은 만큼 전하는 것. 이 간단한 원칙을 기억한다면 지구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인생은 잠시 시간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어느 소설가의 말이 생각한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그릇을 어떤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고요하고 잔잔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고 도전하며 요동치는 시간으로 그릇을 메워나가다 마침내 그릇을 깨치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갈 것인가? 발밑을 한 번 다시 살펴보고 대답해 보자.

평발의 25살 청년,

최연소 4대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 달성!

**사막과 남극을 달린 청춘의 땀방울에는
한 편의 시가 담겨 있었다!**



『달리는 청춘의 시』

시는 쓰고, 나는 달렸다

윤승철 지음 | 560쪽 | 18,000원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무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행도 그렇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도 좋지만 여행의 본질은 어쩌면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막과 남극이라는 지구의 극지를 오로지 달려 보고 싶다는 꿈 하나에 의지해 뛰어든 윤승철 씨의 여행 이야기가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타의 블로그와 여행책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막의 햇빛을 맞으며 남극의 눈보라와 싸우며 세계의 끝에 남긴 1,250킬로미터의 발자국을 쫓다 보면 심장은 뜨거워지고, 발바닥은 간지러워질 것이다.